

# 전남 정보 등대 J벤저스

▶ 조유건, 박건영, 허비치(오산초등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 리포트

정말 다문화 가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많을까?

## 영 상

전남정보등대 J벤저스가 알려주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다문화 사회 이야기



## 각오한마디!

저희는 어둠에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전남 정보등대, 또 전라남도과 진도를 대표하여 어벤저스와 같은 영웅이 되어 거짓 정보와 싸우고자 J와 어벤저스를 합성한 J벤저스를 모두 더하여 전남 정보등대 J벤저스로 팀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거짓 정보로부터 전라남도과 진도를 지키는 전남 정보 등대 J벤저스입니다. 어둠(잘못된 정보들) 속에 한 줄기 빛(올바른 정보)을 전달해 주는 등대가 되어 사람들이 거짓 정보 없는 행복한 사회에서 지내게 하고 싶습니다. 또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물리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리포트

### 정말 다문화 가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많을까?

####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 주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전라남도와 같이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다문화 가정 및 외국 거주자가 많은지 궁금했다.
  - 일상 생활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30-40대)이 “아! 이제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계속 많아지고, 외국인만 사는 마을이 되어버리겠네!”라는 말을 들었다.
  - 할머니들께서도 “시골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외국 여자들만 많이 와.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갈수록 외국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
- 우리 학급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번역기를 쓰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데 기사들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여전했다. 예를 들어 번역기 쓰는 교실의 기사에서도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였던 통계자료는 있지만, 순수 외국인이나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학생에 대한 통계는 없고, 다문화 학생 때문에 번역기를 쓰는 것 같이 기사 내용이 되었다. 이는 결국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민엽, “도내 다문화 학생 10년새 88%증가... 번역기 쓰는 교실도”, 강원도민일보, 2023.06.05.

- URL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6770>

- 요약: 다문화 학생들로 있어서 번역기를 써야 하는 교실이 많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생들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음.

- 요약한 내용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우리 팀원 중에도 다문화 학생이 있고,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똑같이 다녀서 전혀 학교생활이나 학급에서 공부할 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중간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 때문에 번역기를 써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번역기 쓰는 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신문 기사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오정미, “글로벌 다문화 가정” 다 함께!, 매일신문, 2015.11.04.

- URL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5110401113807616>

- 요약: 처음 우리가 접한 다문화가정의 소식은 시골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있었고, 고향에 남아 있던 청년들은 배필을 못 찾아 발을 동동 굴렀다는 기사

우리는 우리 지역 전라남도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만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팩트체크를 하고 싶었다. 팩트체크를 통해 잘못된 어른들의 편견 및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통계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기에 “정말 다문화 가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만 많을까?”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 다문화 관련 인구 통계를 조사하고 비교하며 통계를 통하여 다문화 인구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 통계자료(KOSIS), 뉴스(다문화 인구 관련 뉴스와 신문),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여성가족부), 인터뷰 면담(진도군 가족센터 조경순 센터장)

• 제한사항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이루어져 조사 결과가 기준시점이 21년 8월이며, 22년 발표 자료가 가장 최신의 자료였음.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지정하여 2009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문화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대부분 2008년부터 시작이거나 2015년부터 통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제한점이 있음.

## 체크해보기

### 01 찾아보기

들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이견

#### ◆ 국가통계포털(KOSIS) : 지역별 다문화 혼인 통계

(2008년, 2021년, 자료갱신일: 2022-11-03)

-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2&c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B0002&co)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1, 2023.06.13, 지역별 다문화 혼인)

- 요약: 2008년에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인 전라남도 14.8%, 전라북도 14.4%로 전국 평균이 11.2%보다 혼인 비율이 높았지만 2021년 통계에서는 전라남도 7%, 전라북도 7%로 전국 평균 7.2%보다 낮았다. 오히려 서울이 8.2%, 인천광역시 8%, 경기도 7.8%로 도시 지역이 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 국가통계포털(KOSIS) :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2015년, 2021년, 자료갱신일: 2022-07-28)

-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2)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2023.06.13,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 시군구

| 구분 | 2015년   | 2021년     | 증감현황      |
|----|---------|-----------|-----------|
| 전국 | 887,804 | 1,151,004 | △ 263,200 |
| 읍부 | 103,169 | 149,853   | △ 46,684  |
| 면부 | 131,580 | 135,974   | △ 4,394   |
| 동부 | 653,055 | 865,177   | △ 212,122 |

- 요약: 면단위 인구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읍단위가 많이 증가하였고 주로 도시 지역인 동단위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 인구는 현재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국가통계포털(KOSIS)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21년),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B000000&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B000000&conn_path=I2)

- 출처: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21, 2023.06.13,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본: 5,000명〉

| 구분          | 있음            | 없음            |
|-------------|---------------|---------------|
|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 | 2,666명(53.6%) | 2,304명(46.4%) |
|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 | 334명(6.7%)    | 4,614명(93.3%) |

- 요약: 2021년 다문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 50% 정도이며, 다문화 활동 참여는 93.3%나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경험이 부족함. 또한 다문화에 관한 법이 없었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어른들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더 적었을 것으로 생각됨.

####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URL: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StoryIndex.do>

- 통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구분       | 2023년       | 2070년       |
|----------|-------------|-------------|
| 총 인구     | 51,558,034명 | 37,655,867명 |
| 생산 연령인구  | 36,372,084명 | 17,367,650명 |
| 청년 인구    | 10,440,000명 | 4,988,000명  |
| 청소년 인구   | 7,913,000명  | 3,613,000명  |
| 고령 인구 비중 | 18.43%      | 46.40%      |
| 고령 인구    | 9,499,933명  | 17,472,938명 |

• 요약: 출생아 수는 1981년 1월 기준 88,151명에 비해 2023년 3월 기준 21,138명 약 25%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확실하며, 인구 수도 줄고 생산 인구도 줄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윤정 외 7명,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2년 3월, 18쪽)**

• 요약: 다문화 가족의 자녀의 2.1%는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하였으나, 2018년 9.2%와 비교할 때, 7.1%가 감소하였다. 차별은 주로 친구로부터 받는 경우 69.2%로 가장 많고, 모르는 사람 23.7%, 선생님 20.2%, 이웃 18.7% 등으로 구성되었다.

차별 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고 53.4%가 응답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경우도 24.4%로 1/4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 비율은 2018년도에 그냥 참는다 42.7%보다 53.4%로 10.7% 증가하였다.

◆ **요약 자료에 대한 우리의 생각**

• 다문화 차별 경험 비율이 2018년보다 줄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원격 수업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경험이 없다 보니 차별 경험의 비율은 줄어든 것 같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는 비율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다 다문화 차별에 대한 학교에서 배우거나 올바른 인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 **진도군 가족센터 조경순 센터장과의 인터뷰 면담**

우리는 진도군 다문화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가족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조경순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 목적은 우리 진도 인구와 다문화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센터장님과 이야기하며 팩트체크를 하여 우리 의견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의 중요성과 다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 즉 전문가의 문제 해결 방안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다문화 가정의 진도 비율과 진도의 인구 증가에 다문화 가정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진도의 다문화 가정 수는 355가구인데, 진도의 전체 인구는 매년 줄어가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수와 다문화 인구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 진도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2.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른 시각(편견)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다문화의 어머니들이 요즘에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다른 나라의 음식도 해드리고 다양한 문화도 알려주고, 말동무도 되어주는 등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생각을 바꾸기 위한 '다이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열린 시각을 가지고 다문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우리나라도 여러 (다)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문화가 우리 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 엄마 나라 방문, 한글 교육, 다양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문화 교육과 활동을 참여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람들의 다양한 강점들을 발견해 주고, 우리도 다문화에게 배울 것들은 배우고, 다문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함께 공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다문화 인권 강사 김세은 멘토와의 인터뷰(원격)

### Q1. 다문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주노동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일과 인권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문화적 오해가 많고 힘든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인권을 가졌음을 인식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Q2. 다문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직접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우리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마다 행동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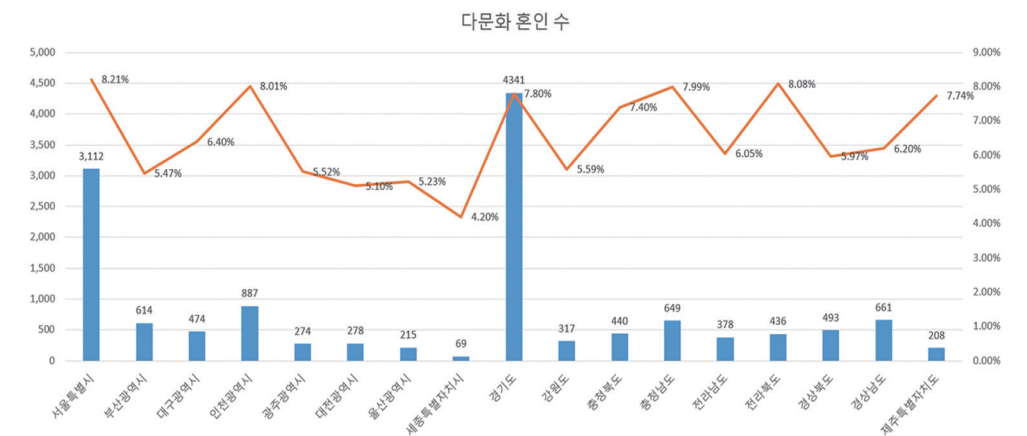
## 결론 작성하기

우리는 정말 다문화 가정은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많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다양한 미디어의 정보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론은 틀리다이다.

2008년 Kosis 통계를 통해 전체 혼인 비중 대비 다문화 혼인 비중을 보았을 때는 전국 평균은 11.2%이며 보통 도시 지역은 8%에서 10%이지만 전라남도 14.8%, 전라북도 14.4%로 농어촌이 있는 우리 지역이 훨씬 다문화 혼인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통계로 전체 혼인 비중 대비 서울 8.2%, 경기도 7.8%이지만 전라남도 7%, 전라북도 7%로 혼인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제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다문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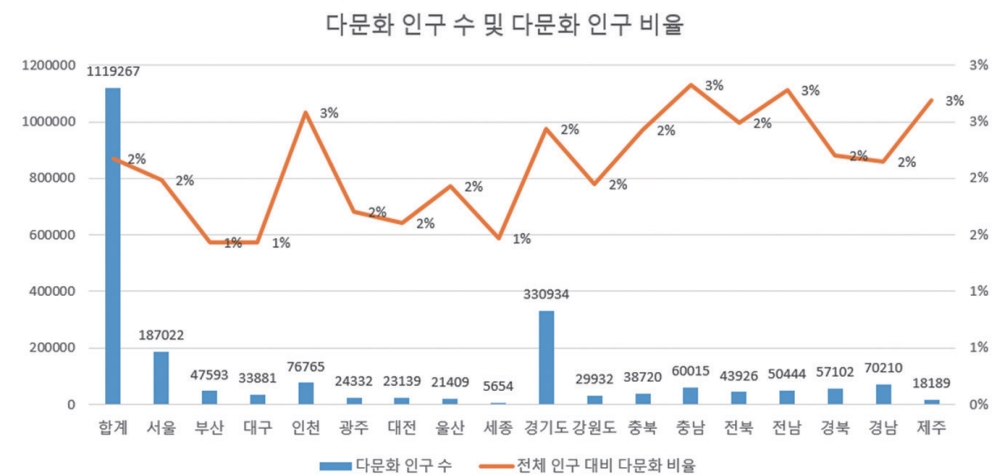
〈2021년 지역별 다문화 혼인 수 및 전체 혼인 수 대비 다문화 혼인 비율〉

통계청에서 다문화 가구 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29만 9천 가구였으나

2020년도에는 36만 8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1.53%에서 2020년 1.71%로 늘어났다(통계청, 2017; 통계청, 2021) 그럼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인구가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많은가 다른 통계를 찾아보았다.

2021년 다문화 인구 수 및 다문화 인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지역 전남은 50,444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30,934명이 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3% 정도이지만, 도시 지역인 인천광역시도 3% 정도의 다문화 인구 비율을 보여 농어촌이 많은 지역만 다문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015년 다문화 인구 수와 2021년 다문화 인구수를 비교하여보았을 때 인천광역시가 53,629명에서 76,765명 23,136명이 증가하였고, 서울이 167,836명에서 187,022 명으로 19,186명, 경기도가 238,285명에서 330,934명으로 92,649명 증가한 반면 전라남도는 44,063명에서 50,444명으로 6,381명이 증가하여 현재 농어촌이 많은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다문화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다문화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수 대비 다문화 인구 비율〉

우리는 방학동안 다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민 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뉴스와 관련 통계들을 조사해보았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 노동자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친구 또는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서지원, “은행직원도 카페사장도 외국인인데... 싸늘한 한국인 시선, 왜”, 중앙일보, 2023.07.26. \*URL: <https://v.daum.net/v/20230726163112122>

• 요약: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수용도 (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10점 기준 5.3점였으며, 2019년(5.2점)부터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 앞으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포용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 정진영, 김지훈, “일꾼은 되고 이웃은 안돼... 이주민 보는 한국인의 두 시각”, 국민일보, 2023.07.26. \*URL: <https://v.daum.net/v/20230726041017697>

• 요약: 2006년부터 계속된 다문화정책, 점점 커진 인구절벽 문제에 따라 한국인의 이주민을 향한 배타적 시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을 범죄·테러와 연관 짓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길 꺼리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해 국내외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는 ‘경제적 수용’과 ‘심리적 거부’가 모두 증가하는 양쪽의 생각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일손’으로 인정하지만 ‘이웃’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결국 2070년에 초고령화 사회 및 인구 감소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문화 인구 수 증가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 증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인식 통계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이주민, 외국인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안된다.

| 구분       | 2023년       | 2070년       |
|----------|-------------|-------------|
| 총 인구     | 51,558,034명 | 37,655,867명 |
| 생산 연령인구  | 36,372,084명 | 17,367,650명 |
| 청년 인구    | 10,440,000명 | 4,988,000명  |
| 청소년 인구   | 7,913,000명  | 3,613,000명  |
| 고령 인구 비중 | 18.43%      | 46.40%      |
| 고령 인구    | 9,499,933명  | 17,472,938명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 이주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모두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도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어른들의 말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우리의 체커톤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체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한다는 ‘친구들로부터 차별 및 편견’,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 등 다양한 자료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바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또 우리 주변’부터 인식 개선을 위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홍보하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 정보등대 J벤저스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미디어 콘텐츠

### 전남정보등대 J벤저스가 알려주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다문화 사회 이야기

#### 콘텐츠 소개

##### ➔ 기획의도

우리가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이유는 우리 고장 진도에는 일단 베트남 가정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필리핀이며, 또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도 있다. 그래서 3가지 언어 버전으로 만들었다.

또한 우리 학급에는 다문화 가정이 5가구로 30% 이상이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께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또한 우리 고장의 외국인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존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제작하게 되었다.

##### ➔ 상세설명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이주민, 외국인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바로 실천할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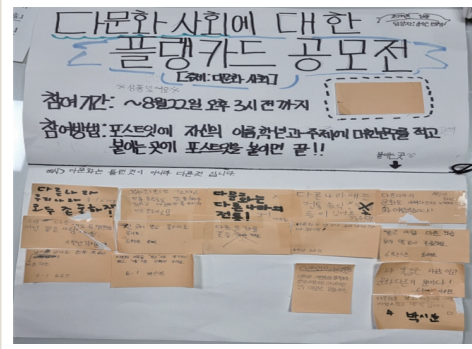




# 홍보 및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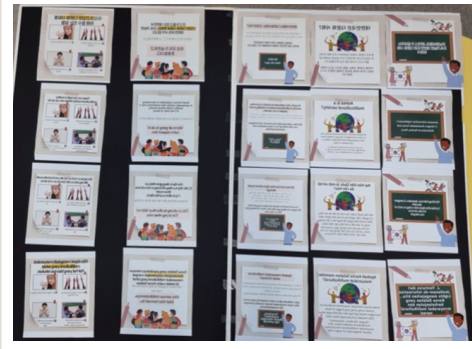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표어 공모전 운영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표어 공모전 결과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플랑카드 게시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홍보자료 제작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내 캠페인 활동(중간 놀이, 점심 시간)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전교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선생님들 대상 캠페인 활동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SNS(온라인) 캠페인 홍보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우리 고장 진도 캠페인 활동



## 참여소감

### 조유건

처음 체커톤 대회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정해야 할 때 1번째 주제를 청했지만 얼마뒤 다시 주제를 정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주제를 '다문화는 <sup>농어촌</sup> 직장에 정말 많을까?'로 정하고 Kosis국가 통계 포털에서 전국 다문화 혼인수와 다문화 인구수 및 다문화 인구 비율을 찾아서 Excel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자료를 정리했을 때 체커톤 대회를 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다.

우리가 자료를 찾고, 뉴스들보고, 보고서를 만든다 보니 보고서를 제출해야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얼마뒤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본선에 진출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선생님이 본선에 진출하면 무조건 상을 받는다고 하셔서 더욱 기뻐다.

본선에 진출하면 예선보다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초반 부터 강의 를 많이 들어서 힘들었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후반에는 홍보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해서 많이 어려운 것은 없었다.

체커톤을 처음 시작 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는데 대회를 하다 보니 팀원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고, 다문화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다문화를 존중하고, 다문화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겠다.

### 박건영

처음 체커톤 주제를 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농어촌이 많은 지역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하왔는데 정보와 자료가 잘 나와있지 않아 얼마뒤 주제를 바꾸는데 그때 일행생활에서 들었던 말을 바탕으로 '정말 다문화 가정은 농어촌 지역에만 많을까?'

라는 주제에 도달했다. 그뒤로 Kosis와 Excel 활용하게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만들고 나서 "과와 내가 상을 받으면 어찌지?"라는 기억에 한 번 씩 웃어 있었다. 그 뒤로도 전문가에게 직접 여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친절하게 답변해주었다. '전문가'라는데 생각보다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이벤트를 계기로 전문가에 대한 편견도 깨지고 전문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연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과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설마 우리가 떨어질까?' '아, 어쩌면 과와 둘과 원하면 좋겠지' 같은 생각이 한사라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었다. 대망의 결과 발표날 우리가 본선을 했다는 걸 보고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로 감동하면서 울었다. 본선에 진출해서 플린카드 공모전을 열어서 '오리고장 작은 세계 행복한 지구'로 나아가는 한걸음'이란 문구가 뽑혔다. 생각보다 좋은 문구가 나와 정말 행복이 끝없는 기쁨을 가져다줬다. 피드백을 받고 우리들의 단점을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

### 허비치

처음 체커톤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제를 정말 많이 고민하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만 있을까? 라는 주제를 정하고 이주제를 바탕으로 Kosis, 뉴스, 설문조사 자료, 인터뷰 등을 찾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Kosis에서 여러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아가면서 주제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눈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서 Excel로 그래프를 만들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막상 무다 만들고 나서 뿌듯했다. 또 인터뷰 단계를 하면서 다문화와의 대해 좀 조금이나마 더 잘알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결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이게 제일 수있던 것 같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면서 느끼는 ~~상~~ 저희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기가 이게 되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수준은 농학동안 열심히 미리컨버스로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우리팀 멤버인 건영이가 협조를 좀 안해주어서 기분이 안좋았다. 그리고 ~~결과~~ 자랑도 주었다. 방향이 끝난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고 플린카드 공모전을 열어서 뽑고 또 방향대로 만든 홍보자료도 홍보하라고 해서 내 자신 조금 발전한 것 같기도 했고, 이수준문을 씬으로써 저희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잘못된 점과 있다면 바로 짚아주세요.